

CEO 지식향연서 '전북자치도 백년대계' 강연

김관영 도지사, "백년대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함께 힘모아" 강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군산 한원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CEO 지식향연에 참석한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이 주최하는 CEO 지식향연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 소상공인을 초청해 경영마인드 제고와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다.

지난해 6월 열린 지식향연에 이어 올해도 강사로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란 주제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하는 원대한 계획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미래 설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CEO 지식향연 또한 재단 이용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군산 한원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CEO 지식향연에 참석한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란 주제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하는 원대한 계획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미래 설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다.

고객은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전주·군산상공회의소 등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의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도전 등 백년대계를 향한 도민의 열망이 현실이 되도록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전북이 더 새롭고 더 특별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강연에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인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이만호기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연원섭 본부장은 19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연원섭 한전 전북본부장, "전 직원들과 플라스틱 줄이기 앞장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연원섭 본부장은 19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에서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으로 연원섭 본부장은 김관영 전북농협 본부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연원섭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북본부 전 직원들과 함께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고 꾸준히 실천하여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

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본부는 한전 지역본부 최초로 ESG 경영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회의 시 개인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사용하고 현수막 대신 LED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원섭 본부장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다음 주자로 이용배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경영처장을 추천했다.

/김옥기기자



남원원에농협 임직원은 최근, 조합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원원에농협, 조합원 300여명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교육

남원원에농협 임직원은 최근, 조합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기유형에 대한 설명과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경제적 손실 예방법 및 보이스피싱 발생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또 최근에는 부고장 청첩장 택배배송 안내 등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URL 주소를 클릭하는 스미싱 유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입지않도록 안내하였고, 조합원 및 고객이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농가서 만든 색다른 치즈·소시지 직거래 장터 연다

농진청, 20~22일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서 판매 홍보 행사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가에서 직접 만든 유가공 및 육가공 식품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판매 행사(직거래 장터)를 연다.

국립축산과학원과 농협하나로마트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축산 가공식품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가공 농가 4곳과 육가공 농가 2곳에서 생산한 제품이 소비자와 만난다.

주요 제품은 플레인요거트, 스트링치즈, 그릭요거트, 구워 먹는 치즈(할루미 치즈) 등 유가공품 9종과 소



시지, 살라미, 슬라이스햄 등 육가공품 11종 등이다.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식도 준비하고, 참여 농가의 제품 홍보물을 비치해 농가형 축산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농가 제조 유·육가공 제품은 직접 생산한 원유와 원육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욱 신선하고, 농장마다 제조 방법이 달라 맛이 특색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김주연 대표(용정목장)는 "시식 행사를 통해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참여 농장에도 소통할 수 있어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농촌진흥청은 축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축산물 가공 기술을 지속해서 보급해 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중기청,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 초격차 스타트업 100+ 선정

전북중기청은 19일 전주첨단벤처단지에서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 (이하 초격차 프로젝트) 기업으로 선정된 (주)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와 '현관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관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점 과제인 '초격차 프로젝트'에 우리 지역 (주)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우수·항공분야 초격차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민간 합동으로 10대



전북중기청은 19일 전주첨단벤처단지에서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 (이하 초격차 프로젝트) 기업으로 선정된 (주)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와 현관식 및 간담회 를 가졌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와 기

술, 시장수요에 부합하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님테크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주)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창업하여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과 연구개발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으로 보잉 B777 항공기 객실 창문 덮개 자체 개발에 성공 항공부품 국산화를 통한 외화 절감 및 국내 제작업체의 경쟁력 확보 등 항공 부품 제작산업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김옥기기자

전북농협, 수출확대 위해 홍콩바이어 초청행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농협(본부장 김관영)은 농협무역(대표 진종문)과 함께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를 열었다.

이번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는 전북의 우수한 농산물 특히 복숭아, 수박, 멜론을 홍콩시장에 수출 확대하고자 이루어졌다.

올해 익산원에농협, 전주농협, 임실군조공법인, 무주군농협조공법인에서 수박·멜론 20천\$, 복숭아 30천\$를 해외 바이어에 수출할 예정이다.

전북 복숭아는 식감이 우수하며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좋아 인지도가 높으며 수박과 멜론 또한 당도와 과즙이 풍부하여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홍콩 바이어 Freco(대표 Ms. Sin Stefany)는 1983년에 설립한 회사로 2023년 기준 신선농산물을 8억3천 홍콩

달러를 주요 유통회사 등에 납품하였다.

김영일 본부장은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으로서 신뢰하고 신뢰받는 수출을 추진할 것이며 전북의 우수 농산물을 바이어가 직접 보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농산물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농협(본부장 김관영)은 농협무역(대표 진종문)과 함께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를 열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